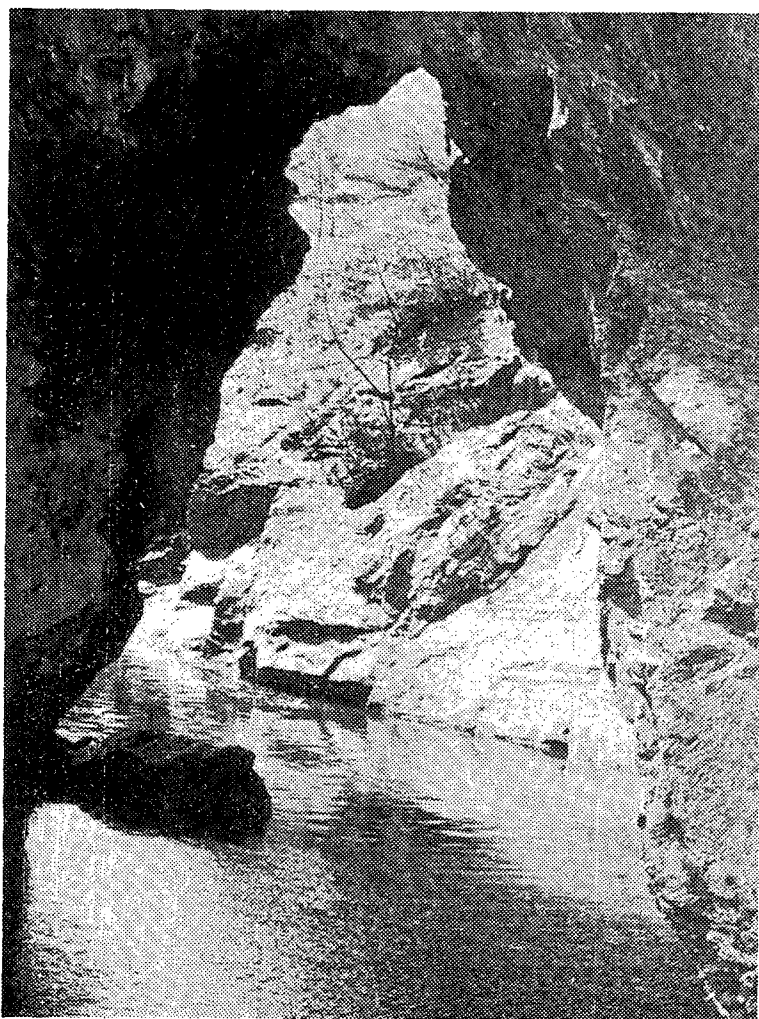


□時論□

自然保護 有感

金 祚 漢
(全国主婦教室中央会 사무처장)



1. 故郷과 自然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다.

어릴때 뛰놀던 山과 江, 싸움하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던 친구들과 골목 토담길, 장난이 심해서 걱정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어느것 할것 없이 거기에는 짙은 색깔과 그윽한 향기와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그 시절의 아련한 분위기가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연한 계기에 가끔 떠오르게 된다.

향수라고 하는 것일 것이다.

어떤 嚴格한 생활에 얽매어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의 고향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구제되는 것같은 훈훈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내가 어릴때 피부에 와 닿던 故郷의 향기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을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故郷의 향기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自然의 품이었던 것을 아련히 느껴본다.

맑은 시냇물,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 원색 그대로의 흙과 돌맹이들이 내가 어릴때 살던 故郷인 것을 새삼스럽게 재조명하면서 아름다운 自然의 향기가 어떤 것이었던가를 또한 반추해 본다.

2. 自然에의 再認識

따지고 보면 自然은 우리의 生活自體를 가능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는 우리의 生活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 된다고 하겠다.

푸른 산야, 청정한 대기와 맑은 물은 生活을 윤택하게 하는 생명원이며 삶의 터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듯 소중한 自然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에는

내가 어릴때 피부에 와닿던 고향의 향기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을 받쳐주는 기둥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고향의 향기는 자연의 품이었던 것을 느낀다.

대체로 무관심한 경향이어서 지난 10년동안의 自然保護運動이 오히려 무색한 느낌도 감추기 어려울것 같다.

눈앞의 利益을 위해서는 별 생각없이 自然을 破壞하고 정복을 통해서 얻는 수확을 즐기기에 급급할 따름이지 自然의 破壞로 말미암아 우리 人間에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問題가 있는것 같다.

自然은 말이 없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를 아끼는 자에게 보답하는 대신, 그를 破壞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보복을 한다.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란 슬로건으로 開催되었던 유엔의 人間 環境會議가 人間이 自然을 破壞해 나간다면 마침내 지구와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갈파했던 사실만으로도 自然保護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절실히 터득할 수 있다.

3. 自然保護의 方向

그렇다면 自然을 保護하고 조화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류는 많은 人工環境을 만들어 왔다고 할

「단 하나밖에 없는 지구」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유엔 人間環境 회의는 “자연보호”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좋은 기회였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결코 自然과 대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自然破壞的인 작용을 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自然은 애당초부터 원상 그대로를 보존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建設은 어려우나 破壞는 쉽듯이 수십년 걸려서 이룩되는 自然環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破壞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破壞된 自然을 回復시키는 일은 힘들지만 그 回復에 드는 노력이야말로 보존에 비해 몇배나 힘이 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破壞이전에 보존하는 지혜가 얼마나 必要한가를 깊이 느끼게 된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江山을 물려받았다.

그 아름다운 江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位置에서 우리 국토를 내손으로 가꾼다는 긍지를 가지고 自然保護의 生活化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등산인구가 급증하면서 명산대천이 몰지각한 등산객들에게 짓밟혀 더럽혀지고, 마구버린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고, 기암괴석마다 갖가지

낙서가 새겨지고, 희귀한 돌과 나무들을 몰래 캐다가 정원석이나 정원수로 팔아 넘김으로써 아름답던 예전의 자연경관은 다시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自然保護運動에 발맞추어 각종 단체들이 「나무를 사랑하자」는 등의 표찰을 달기 위해 나무나 돌에 못질을 하거나 글씨를 써넣어 더욱 괴로움을 주는듯해서 안타깝다.

사람공해에 시달리는 우리 주변의 自然을 保護하는 길은 바로 내

「나무를 사랑하자」는 등의 표찰을 달기위해 나무나 돌에 못질을 하거나 글씨를 써넣어 더욱 괴로움을 주는듯 해서 안타깝다.

故郷을 알뜰히 가꾸고 보존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 같다.

따라서 自然保護運動과 공해방지업무를 아울러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企業人을 포함해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공해문제에서부터 비롯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自然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공해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自然保護問題는 어릴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自然을 대하는 인식을 올바르게 하도록 自然保護思想을 심어 주어야만이 일생을 통해서 自然을 아끼고 保護하는 生活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적어도 국민학교 생활만이라도 전과정을 통해서 自然保護에 대한 실천적인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릴때 뛰놀던 그 산과 그 江의 모습은 영원한 내 마음속의 추억만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인가?

제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自然에의 대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듯이 우리는 自然에의 위대성을 긍정하면서, 또 自然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싱싱한 생명력 앞에 경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바야흐로 봄의 문턱을 향한 계절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세로 어린시절의 옛 故郷을 그리는 추억속에 젖어보는 순간을 가져본다.

머지않아 봄이 오면, 그 어느것도 두려워 할줄 모르는 기운찬 生命력과 無限한 가능성이 눈부신 태양과 함께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自然의 위대함, 속임수를 모르는 영원한 섭리앞에 경건히 고개숙이면서